

어느 재조일본인의 인양 회고와 그 의미*

-요시하라 이사무의 『내려진 일장기』에 나타난
일제 말기 인천의 지리지-

윤미란**

〈차 례〉

1. '재조일본인' 속의 일본인의 삶과 인양
2. 종전 전후 요시하라 이사무의 조선 인식
3. 추억의 기억화, 반성과 화해로 가는 길

[국문초록]

본 논문은 요시하라 이사무(吉原勇)의 수필 『내려진 일장기-국민학교 1학년생의 조선일기』(2010)에 나타난 일제강점기 말기와 인양기에 관한 재조일본인으로서의 조선 인식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 요시하라 이사무는 종전 전후에 재조일본인으로서 인천에서의 경험을 회고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어제의 적에서 오늘의 조력자가 되는 현실 모순의 상황을 인식한다. 또 그는 조선인을 이법법적으로 도식화(나쁜 조선인/착한 조선인)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정형화를 강화하는 한편 착한 조선인 에피소드를 통하여 기존의 조선(인) 인식을 전복하기도 한다. 요시하라는 '제국의 브로커'도 아니고 '식민자의식'이 강렬하지도 않았던 한 재조일본인으로서 인양기 인천의 체험을 '화해를 위한 기억'으로 재구성하였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1047).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주제어] 요시하라 이사무(吉原勇), 『내려진 일장기-국민학교 1학년생의 조선일기』(2010), 재조일본인, 인양 기억, 인천, 재구성, 화해

1. ‘재조일본인’ 속의 일본인의 삶과 인양

요시하라 이사무(吉原勇)는 조선(인천)에서 태어난 일본인이다. 그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일제 강점기에 조선에서 교사 및 교장을 하던 일본인의 아들로 태어나 1945년 당시 국민학교 1학년까지 양평, 개성, 인천 등에서 거주하다 패전 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고향인 히로시마로 송환되어 살아야 했다. 그는 재조일본인으로서의 삶의 기억과 복잡한 의식을 담아 수필집 『내려진 일장기』(2010)¹⁾를 세상에 내놓았다. 『내려진 일장기』에 따르면 그와 그의 가족은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 정착자로 살다가, 패전 직후 조선에서 패전국 일본인 인양대상자로 호명되었으며, 본국으로 송환된 이후 일본에서는 조선 태생의 경계인으로,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평범한 일본인으로 살아왔다.

요시하라 이사무를 지칭한 “재조일본인”이란 일제시기 조선에서 거주하며 삶을 살아간 일본인을 지칭한다. 재조일본인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광범위한 만큼 다양한 재조일본인들이 내포되어 있다. 우선 단순하게 구분하자면 식민지를 의식하고 있는 측, 개인의 영달과 초개인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의식이 동시에 작용하는 부류가 있다. 아울러 식민지 의식이 있으면서 이것을 개인의 입신출세 수단으로서 적극 활용하려는 부류가 있다. 한편 식민지 의식이 없거나 약하였지만 훗날 이에 대한 판단 내지는 비판이 생긴 부류가 있을 것이다. 재조일본인 2, 3세 중에 이런 부류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찾아볼 수 있는 다른 부류는 식민지 의식이 없거나 크게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류, 즉 경제적으로 좋은 근무여건을 고려해 조선으로 이주했으나 패전 후 강제 본국 송환으로 좋은 여건을 버리고 일본

1) 吉原勇, 『降ろされた日の丸-国民学校一年生の朝鮮日記』, 新潮社, 2010.

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에 처해 자신들의 선택에 제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류 등 재조일본인에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포함되어 있다.

우치다 준은 재조일본인을 가리켜 ‘조선 이주 정착민’, ‘제국의 브로커들(brokers of empire)’이라고 지칭하며 제1세대를 중심으로 본국 자본과 문화의 통로(전달자)로서 근대국가와 제국으로 성장하는 일본을 어떻게 조율해왔는지, 정착민 사회와 국가의 선이 유동하면서 모호해지는 지점을 연구하였다.²⁾ 한편 이동훈은 ‘개항기부터 30~40여 년에 걸쳐 재조일본인이라는 식민자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구축된 재조일본인들의 의식 구조를 연구하였는데 식민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식민자인 조선인과의 조우 및 접촉을 통해 형성된 재조일본인의 의식 구조를 ‘식민자의식’(植民者意識)이라 정의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구명하였다.³⁾ 이동훈은 기바타 요이치의 ‘제국의 ‘중심’에 속해있다는 의식’인 ‘제국의식’과 재조일본인들의 ‘식민자의식’은 모두 피식배민족에 대한 멸시관과 우월감에 의해 구축되고 유지되는 의식 구조이나, ‘제국의식’은 언론보도나 학교교육이 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단이 되며 국민이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형태로 익숙해지는 잠재의식에 가까운데 비해 ‘식민자의식’은 식민지에 거주하면서 식민 통치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것들의 집합체이며 식민자 사회에서 축적되고 공유되어온 의식이라며 두 의식을 구분 짓고 있다.⁴⁾

본고에서는 기왕의 연구에서 구명된 재조일본인 속에 있는 ‘제국의 브로커들’과 ‘식민자의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조선에서 패전과 인양 즉 강제 송환이라는 체험을 함으로써 본토의 일본인과는 다른 복합적인 의식이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복합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인 의식을 지니게 된 또 다른 재조일본인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2) 우치다 준, 『제국의 브로커들-일제강점기 일본 정착민 식민주의 1876-1945』, 한승동 역, 도서출판 길, 2020, 25~30쪽.

3) 이동훈, 『일본인 식민자 사회가 바라본 3.1운동』,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21, 2019.08, 79쪽.

4) 이동훈, 『일본인 식민자 사회가 바라본 3.1운동』,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21, 2019.08, 79~80쪽.

자 한다. 특히 자신들의 입신출세 혹은 성공의 밑거름이 되고 있던 일제의 힘이 한순간 소멸되었다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일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극한의 상황이 일생일대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온 재조일본인과 그의 삶이 기록된 텍스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지 조선을 선택하여 인생의 일대 모험을 감행하였던 자신들에게 어떠한 선택권도 없다는 사실에 일제와 전쟁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허무감이 극에 달했던 재조일본인은 일제말기와 본국으로 송환되기까지의 기억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화하고자 하였다.

일제 말 조선에는 30만 명의 군인을 포함하여 약 100만 명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이주해온 1세대 부모 또는 조부모는 조선에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며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말기가 되면 재조일본인들은 2세를 낳아 키우며 재조선일본인 문화를 일정하게 형성하여 간다. 재조선일본인 대부분은 조선인과 분리된 곳에서 거주하였으며 일본인전용 학교가 있어 조선에 살면서도 조선인 또는 조선의 교육 등을 포함한 여러 문화와 거리를 두면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다. 한반도에 살면서 조선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으며 살 수 있었기에 일제시기 재조일본인에게 조선은 식민지에서의 성공의 꿈을 안고 새 삶을 개척하고자 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곤 하였다.

따라서 재조일본인들의 당시 조선에 대한 인식은 조선 자체에 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삶에 있어서 필요하거나 이용해야 할 조선에 관한 인식으로 보아야 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조선에 관한 인식이 일률적이고 단편적으로 통일되어 나타나는 것만은 아닌 지점도 공존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말기 총동원체제의 가혹한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 절정에 이른 1945년 8월 15일 패전 전후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은 상상하지 못한 사회의 변화를 겪어야 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일본인사회에서 상식과도 같이 널리 공유되었던 편파적인 조선에 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된 반면 미군의 남한 진주와 같은 생각지 못했던 정치사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조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전후, 당시 8살 국민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던 요시하라 이사무(吉原勇)는 그 당시의 경험을 기록하고 “국민학교 1학년의 조선일기”라는 부제를 달아 수필집 『내려진 일장기』⁵⁾를 2010년에 일본에서 출간하였다. “일기”라는 부제를 달았지만 텍스트 전체는 날짜별로 사건이나 감정을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형식의 일기가 아니다. 종전 전후 조선에서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을 사건별, 주제별로 적어놓은 수필집이다. 이 책은 재조일본인 및 조선 체재의 경험이 있었던 일본인들의 조선에 대한 여러 인식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또 재조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향유했던 공간으로서의 인천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일제강점기 말기 혹은 인양(引揚)⁶⁾기(1945년 8월 15일부터 재조일본인이 인양된 날까지)의 재조일본인 연구는 역사 분야에서 식민지 조선 내 일본인 학교의 교육과 학교생활의 특징인 입시경쟁과 서열화 경향을 분석한 연구⁷⁾, 식민지기 한반도에 정착한 일본인들과 조선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조일본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정형화되고 인종화된 인식을 분석한 연구⁸⁾를 비롯하여 재조일본인 인양 연구⁹⁾ 및 재조일본인 인물 연구¹⁰⁾ 등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문학 분야에서는 후지와라 데이의 소설 『흐르는 별은 살아있다』 등의 인양서사 연구¹¹⁾를 비롯하여 재조일본인 2세의 회상기와 체험담에 나

5) 吉原勇, 『降ろされた日の丸－国民学校一年生の朝鮮日記』, 新潮社, 2010.

6) 인양(引揚)이라는 용어가 한국에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귀환’이나 ‘철수’ 등의 다른 용어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용어 자체가 일제강점기 말기에서 1945년 해방 공간에 사용되었던 사회문화사적 의미를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인양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7) 권숙인, 「식민지배기 조선 내 일본인학교－회고록을 통해 본 소·중학교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77, 한국사회사학회, 2008.3.

8) 권숙인,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피식민 조선인과의 만남과 식민지의 형성」, 『사회와역사』 80, 한국사회사학회, 2008.12.

9) 이가연, 「해방 직후 재조일본인 ‘귀환인양(引揚)’ 연구의 성과와 전망」, 『지역과 역사』 47, 2020.10.

10) 김윤경, 「재인천일본인 고타니 마스지로의 삶과 활동」, 『인천학연구』 25,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6.8.

11) 신승모, 「인양(引揚) 후의 유이사 가쓰에 론－연속해가는 혼효성(混 효性)」, 『어어일문학연구』 71, 한국어어일문학회, 2009; 김예림, 「포스트콜로니얼의 어떤 복잡한 월경적 연애에 관하여 구식민지와 구제국 그리고 기억－기록의 정치학」, 『서강인문논총』 3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김예림, 「중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精神誌)」,

타난 고향상실자로서의 의식과 전후일본사회에 대한 위화감을 분석한 연구¹²⁾ 등이 있는데 이 연구들은 재조일본인의 서사물과 그 속에 나타난 의식을 분석하고 구명한 연구들로서 의의가 있다.

재조일본인의 삶은 인양시기에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선택이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인양과정에서 또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개인의 선택이 배제된 채 조선에서 인양되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을 살아내야 했던 매우 특수한 경우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인양기의 재조일본인들은 이전까지 거주하며 형성해 왔던 조선에서의 환경이 타의에 의해 변화하였기에 삶의 방식 또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들이 어느날 갑자기 해방을 맞아 급변하는 사회를 겪어야 했던 한편 재조일본인들은 패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일본의 국민으로서 호명되어야 했다. 남한에 진주한 미군과 미군정 그리고 식민지에서 독립국이 된 조선과 조선인의 위상, 식민 모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사라지고 패전국 국민으로서의 질곡이 커진 재조일본인들의 상황 등이 인양기에 동시에 생겨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조일본인이 일본땅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조선 인식은 어떤 면이 강화되는지 혹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시의 복잡다단한 조선 사회를 들여다보는 데 일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내려진 일장기』는 일제말기 조선, 그 중에서 인양기의 인천에 대한 지리, 공간 정보와 인식 그리고 해방 후 현대 한국에 대한 정보까지 전달하고 있는 수필집이다. 이런 정보가 경험, 학습 또는 관습적 편견 등의 생성 근원을 포함하여 어떤 정보인지, 즉 사실 여부, 왜곡된 정보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가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또 어떻게 참고되었는지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다. 저자의 조선(개성과 인천) 경험이 담겨 있는 『내려진 일장기』는 당대 조

『상허학보』 34, 한국어와문화회, 2012; 박이진, 『아시아의 망명, 귀환자의 '전후'-아베 고보 『인어전(人魚伝)』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35,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노상래, 『귀환서사에 나타난 균열과 직시되는 진실-후지와라 테이의 『호르는 별은 살아있다』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6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5.

12) 이수열, 『재조일본인 2세의 식민지 경험-식민 2세 출신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2.

선(인천)의 지리적, 사회사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도 해서 일제강점기 말기 조선(인천)에 대한 인상을 일본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나 경험은 다른 사람의 글이나 정보를 참조하여 서술을 확장하고 있는데 어떤 텍스트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 정보는 다시 어떤 정보로 재창조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여 결국 필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조선(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떤 양상인지 밝혀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종전 전후 요시하라 이사무의 조선 인식

1) 인천에서의 종전 경험과 인식

1882년 5월 이응준의 태극기가 만들어진 이래¹³⁾ 태극기가 대소사에 등장 하였지만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 태극기는 ‘반일(反日)’과 대한독립을 드러 내는 것으로서 매우 특별하고 일정한 의미가 있는 상징물이 되었다.

太極旗와 警察署

집 대문에 태극기

삼십일 오후 인천부 신당 삼번디(仁川新町三番地)로부터 중국인 야채시장(中國人野菜市場)으로 통하는 길거리 었던 일본사람의 세집(貸家)이라고 써붙인 빈 집(空家) 압해 그집 대문 우에다가 태극기(太極旗)를 조희에다 그리어 부친 것을 인천경찰서 고등계에서는 그것이 누구의 소위인지를 엄람하며 일변으로 그집 소유 자를 불너 그것을 곳 업시하라고 하였다더라(인천)¹⁴⁾

위 기사는 1925년 3월 30일 인천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준다. 당시 아무도

13) 노영돈, 「태극기의 국기로서의 최초 사용과 인천」, 『인천학연구』 26, 2017.02 참조.

14) 「太極旗와 警察署」, 『동아일보』, 1925.4.1, 2쪽.

살지 않고 있었던 한 일본인의 집 대문에 종이에 그린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는 상황, 이에 인천경찰서 고등계에서 범인을 색출하는 한편 일본인 집주인에게 태극기의 제거를 명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였는지, 해당 사건이 벌어진 이후 주변의 상황이나 영향 등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아주 간결하게 잠시 비어있는 일본인의 집을 노려 누군가가 급히 만든 종이 태극기를 공공적으로 노출한 사건만을 서술하고 있다. 추측건대 종이 태극기의 제작과 노출을 기획, 실현한 사람은 조선인일 확률이 높을 터이며, 여러 여파를 고려하여 인천부청과 아주 멀지도 아주 가깝지도 않은 위치에 있는 일본인집 중에서 비어있는 집을 고른 것으로 보아 당시 신마치(新町), 현재의 신포동 동네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의 소행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일제 말기 신흥동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겼다.

1945년 8월 13일 오후 2시쯤 국민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조선 경기도 인천부(仁川府) 옥정(旭町) 대통(大通)에서 웅크리고 앉아 울퉁불퉁해진 아스팔트 포장 도로면의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중략)

똑같이 1학년이고 서너 칸 떨어진 곳에 사는 겐짱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2, 3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겐짱이 일어나더니 돌연 큰 소리로 말했다.

“이상하네, 이 시간에 왜 국기를 내리는 거지?”

뭔가 보니 겐짱은 우리들이 다니고 있는 인천공립아사히국민학교(仁川公立旭国民学敎) 안쪽의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었다.

옛 지도에는 프랑스코회당이라고 되어 있는 교회다. 우리들은 단순히 프랑스코회라고 불렀는데 인천에서 드문 아름다운 건축물의 하나였다. 교회는 국민학교의 북쪽 옆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학교 지붕 위에 건물이 반 정도 보였다. 한층 높은 종루는 원추형의 초록색 지붕이었는데 주변을 비에(睥睨)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붕 꼭대기에는 가는 십자가가 달려 있었다.

교회 건물 옆에 국기게양대가 있고 위 절반만 보였다. 나도 일어나서 보니 평상시라면 오후 5시가 지나지 않고서는 내리지 않을 일장기가 스프르 스프르 내려가고

있었다.

“뭔가 불행한 일이 있어서 반기(半旗)라도 하는 걸까?”

젠짱이 중얼거렸다. 2년 정도 전 전선시찰 중에 남태평양에서 전사한 아마모토 고주로쿠(山本 五十六) 원사를 애도하여 반기를 게양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반기라면 게양대 위에서 3분의 1정도 높이에 고정하는데 일장기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

둘이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사이에 일장기는 국민학교 지붕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곧 그 대신 본 적 없는 기가 국기게양대에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때때로 바람에 깃발이 펄럭펄럭 나부끼는 것을 우리 쪽에서 확실히 볼 수 있었다. 일장기와 비슷하나 가운데 부분이 파도 모양이고 절반은 파랗게 칠해져 있었다. 백지 부분에도 모양이 있어 일장기와는 전혀 다른 깃발이 분명했다.

“이상한 깃발이네. 무슨 깃발이지?”라고 젠짱이 불안한 듯 중얼거렸다. 나도 백과사전에 나온 각국의 국기를 떠올려봤지만 이런 깃발은 기억나지 않았다.¹⁵⁾

『내려진 일장기』의 주인공 요시하라 이사무는 1945년 8월 13일 당시 ‘인천아사히국민학교’¹⁶⁾ 1학년 학생으로서 ‘욱정(旭町, 아사히마치)’, 현재의 인천 신흥동 대로에서 북쪽 위를 올려다보면 흰히 보이는 현 답동성당 ‘프랑스 교회’의 국기게양대에서 일장기가 내려가고 처음 보는 국기, 태극기가 게양되는 현장을 친구 젠짱과 함께 목격하였다.

조선 청년의 체포

잠시 후 6, 7백미터 서쪽의 산수정(山手町, 아마테초)에 있는 인천경찰서에서 달려온 몇 명의 순경이 국민학교 정문 앞을 지나 교회로 향하는 가는 언덕길을 달려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교회의 누군가가 경찰서에 통보한 것이 틀림없었다. 아마 그 순경들의 손에 의해서일 것인데, 이윽고 그 깃발은 내려가고 다시 일장기

15) 吉原勇, 『降ろされた日の丸 - 国民学校一年生の朝鮮日記』, 新潮社, 2010, 13~15쪽. 앞으로 인용문에는 쪽수만 표기함.

16) 현 인천신흥초등학교의 전신임.

가 게양되었다. 15분에서 20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일장기가 게양대에 다시 나무끼고 있으므로 우리는 다시 도로 보수작업을 했다. 그러나 겐짱은 계속 신경쓰이는 듯 “분명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어.”라고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날 작업은 끝이 났다. 겐짱의 예언대로 그 작은 일이 격동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당일 그 깃발을 목격한 것은 우리를 포함하여 수십 인에 불과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뉴스는 금새 일본인사회에 퍼지고 저녁에는 깃발을 게양한 것은 조선 청년이고 체포되었다는 정보가 전해졌다.

게양된 낫선 깃발은 후에 한국 독립의 상징이 된 대한제국의 국기로 판명되었다. 그날 태극기가 일본통치하의 인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 무개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종전 직후 같은 것이 가는 곳마다 동네에 게양되었기 때문이다. 기를 게양한 사람들은 종전 며칠 전부터 깃발을 제작하여 준비한 것이 틀림없고 교회에서의 게양은 고양된 분위기의 발로였다고 생각된다.¹⁷⁾ (16~17쪽)

1945년 8월 13일 “태극기가 일본통치하의 인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사실은 그 이전에 비슷한 사건이 인천에서 있었다. 다만 앞서 언급한 1925년 ‘중이 태극기 사건’은 이후 일어날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조의 형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나’가 목격한 ‘일장기 하기(下旗) 후 태극기 게양 사건’은 “격동의 서막”이었다. 곧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독립이다.

저자 요시하라 이사무는 1944년 4월부터 1945년 11월 2일 일본 하카타(博多)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1년 7개월간 인천에서 체재하였다. 그는 할아버지가 1914년 당시 6살이던 아버지를 데리고 경성에 와 어느 소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일가를 이루며 살아왔던 재조일본인 가정에서 1938년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할아버지는 고향 히로시마(広島)의

17) 吉原勇, 『降ろされた日の丸 - 国民学校一年生の朝鮮日記』, 新潮社, 2010, 16~17쪽. 이후 인용문에는 쪽수만 표기함.

시골로 돌아갔으며, 경성사범학교를 나온 아버지가 양평 지평리 소학교에 교장선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후 아버지가 개성의 한 국민학교 교장으로 전근하면서 함께 개성에서 살다가 1944년 4월 인천의 한 국민학교로 다시 옮겨오게 되어서 요시하라의 인천 생활도 시작되었다.

요시하라는 8살 이전에 양평과 개성에서 거주하였기에 두 곳의 기억과 경험은 극히 단편적인 것에 불과한 데 비해 인천에서의 경험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그가 살았던 인천 옥정(旭町, 아사히마치, 현 신흥동) 주변 동네의 모습과 위치를 묘사한 부분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말의 인천의 지리적 특색과 그 이후의 변화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다.

‘대통(大通리)’ 중간쯤에 있는 우리집 맞은 편 집 안쪽은 언덕이고 군데군데 돌계단이 있어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었다.

골짜기 밑처럼 그 일대는 조선인의 밀집부락이었다. 어머니에게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의를 받았으나 때때로 ‘아이고, 아이고’라면서 큰 소리로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마다 골짜기 밑에 내려가 보았다. 어느 때나 장례식이었다. (중략) 궁핍해도 망자(亡者)를 정중히 애도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락 안은 습기가 많았고 도로는 항상 질퍽질퍽하고 주거환경은 열악했다. 언덕 위 일본 인거리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한번은 아버지에게 우리들 일본인이 조선 사람들을 저런 장소로 내쫓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했다.

“원래 이 땅에는 사람들은 거의 살고 있지 않았는데 한일병합 후 일본이 항만기능을 확충한 때부터 일본인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동네가 발전하기 시작하니 조선인이 대거 이주해 와서 이렇게 되었다. 원래 조선민족은 옛부터 저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별로 불만이 없는 것이다. 일본인이 의도적으로 쫓아냈을 리가 없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강조-인용자)

밀집부락과 국민학교 서쪽에는 산수정, 신정, 중정, 본정 등이 있고, 여기가 인천부의 중심지였다. 인천개항 당시 일본인거류지로서 할당받은 토지가 이 부근이다. 중정에 건축된 부청사는 인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었다. 산수정의 경찰서

옆은 공회당이고 그 옆은 세무서. 산수정의 북쪽 산근정(山根町)의 완만한 언덕을 넘은 곳에 인천중학이 있었다.

우리집 동쪽에는 동본원사, 서본원사, 정토종명조사, 일련종묘각사, 금광교 등의 절이 늘어서 있고 그 동쪽에 부도정(敷島町), 환락가였다.

경인선 종점인 인천역 주변은 선박회사 사무소 외 영국영사관, 중국영사관이 줄지어 있었다. 그 약간 동쪽에 중화가가 있고 중화요리점이 백 수십개 영업하고 있었다. 중국인학교도 있었다. 그 일대가 인천에서 가장 변화한 지역이었다. 항구를 따라 해안정(海岸町), 빈정(濱町)에는 창고가 줄지어 있고 곳곳에 정미공장, 제재공장이 산재해 있었다.(47-49쪽)¹⁸⁾

요시하라는 현재 인천상업여자고등학교가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천신사(仁川神社)와 인천신흥초등학교 중간 어름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시하라는 자주 인천신사에 놀러 갔는데 인천신사가 지금보다 약간 높은 언덕에 자리하고 있어서 당시 인천신사에서 월미도나 영종도를 조망할 수 있었으며 1945년 미군의 상륙도 내려다볼 수 있었다. 또 어느 한국인 장로에게 전해들은 인천해전(제물포해전)의 추억도 인천신사에서 경험했다.

개항 초기부터 인천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1914년 일제의 ‘부제(府制)’ 실시 이전에 이미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본정(本町), 이정(裏町), 산수통(山手通), 해안통(海岸通)으로 구분하여 부르기 시작했고,¹⁹⁾ 조계 밖의 조선인 마을을 ‘조선정’이라고 따로 호칭하기도 했다.²⁰⁾ 인천의 조선인들에게는 정작 낯선 정명이 붙은 인천의 여러 장소들이 1936년, 1940년 두 차례에 걸쳐 인천의 지명이 일본식 정명(町名)으로 바뀌고 널리 사용된 시기에 요시하라는 그 새롭고도 익숙한 정명과 함께 자신의 기억 속의 인천을 상기한다.

현재의 신흥초등학교 서쪽으로 산수정(山手町, 아마테마치, 현 송학동), 신정(新町, 신마치, 현 신포동), 중정(仲町, 나카마치, 현 관동), 당시 인천부 청

18) 吉原勇, 『降ろされた日の丸 - 国民学校一年生の朝鮮日記』, 新潮社, 2010, 47~49쪽. 이후 인용문에는 쪽수만 표기함.

19) 『인천사정』, 번역본 17쪽.

20) 박진환, 「통감부 시기 인천의 시구개정사업과 행정」, 『동방학지』 180, 2017, 258쪽.

사가 있었던 본정(本町, 혼마치, 현 중앙동)을 떠올린다. 아울러 산수정, 현 송학동 송학산의 북쪽 산근정(山根町, 아마네마치, 현 전동)의 완만한 언덕을 넘은 곳에 있던 현 제물포고등학교의 전신 인천부립중학교의 모습도 함께 떠올린다. 종전되지 않았다면 요시하라는 하시히국민학교 졸업 후에 인천부립중학교에 진학했을 터이다. 그리고 현 신흥동 동쪽의 사정(寺町, 데라마치, 현 답동)에 이름에 걸맞게 줄지어 있던 일본 절과 현 신흥시장과 송의동으로 이어지는 환락가 부도정(敷島町, 시키시마초, 현 선화동)도 호명한다. 선화동과 송의동의 환락가는 2010년대까지 그 모습을 이어왔었다.

다만 어린 시절의 인상적인 기억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도 기억에 있는 것보다 주변 동네의 특성을 잘 구현하기 위하여 당시와 가까운 시기의 지도, 1925년 발행 실측최신 조선교통지도(實測最新 朝鮮交通地圖,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毎日新聞) 1925년 8월 1일에 발행 부록, 12쪽)를 참조하여 지도의 도움을 받아 기억을 재구성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지도를 수록하였는데 지도에 중국영사관과 영국영사관이 눈에 띄는데 이 관공서에 관한 요시하라의 추억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집 주변 동네 설명에서 단 한번 등장하는 것은 다분히 지도 자료가 참조된 의식적인 인천 인식인 듯하다.

그리고 이런 의식적인 인천 인식은 인용문에서 강조된 것처럼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한층 더 강한 인식으로 전환되는데 근대화의 의지가 없는 인천(조선)을 일제가 근대화해주었고 그 근대화를 기반으로 조선이 발전해오고 있다는 인식이다. 요시하라는 2002년에 인양 이후 처음으로 인천을 다시 방문했을 때 눈부시게 발전한 인천과 인천공항에 놀라며 신흥동을 돌아보면서 구시가지에 “일본인에 의한 도시계획의 흔적(180쪽)”이 남아있는 것을 느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인용문에서는 아버지의 말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른다.”라며 아버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서술하였으나 실제로 책의 말미에서는 사실 일제에 의한 조선의 근대화 기여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말을 빌려 기존의 일본인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있는

서술방식은 1945년 당시 8살 아이의 시선을 빌려 서술하는 어른 요시하라의 인식이 이중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8살 요시하라의 인식은 어리기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하지만 동시에 그렇기에 기성세대의 조선 인식과는 조금 다른, 편견 없는 조선 인식을 드러낼 수도 있다. 다만 그런 어린 요시하라를 어른 요시하라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조선 인식은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조선 인식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1945년 9월 8일부터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이래 B-29폭격기가 떠다니곤 하는데 8살 요시하라의 시야에 미군과 미제 폭격기가 들어오면서 그는 어른들의 모습과 조선인 아이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B29가 무상히 유유히 날아가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던 조선 아이들은 조선어로 가사를 붙여 반복하곤 하였다.

“비행기, 비행기 돌아갔습니다(ビヘンギ ピヘンギ トラガッソッスマダ).”

그 노래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서너 살 많은 아이들이 일본어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비행기가 날아가버렸다 라는 거야.”

친구들이 (일본애들과 말한다고-인용자) 고자질하지 않을까 신경을 쓰며 대답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미군 비행기가 무사히 돌아갔다는 것에 기뻐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B29를 추락시키지 못한 것이 유감인데 조선민족의 의식은 다르구나 하며 그때 눈치챘다.(20쪽)

미군에 대한 적대의식이 있는 일본 어린이 요시하라는 B-29폭격기를 대하는 자세가 조선 아이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한편 이 시기 일본인 어른들조차 어제 적이었던 미국을 오늘은 조력자로 인식하기도 하는 상황에 당황하면서 일차적으로 어른들의 위선을 느끼고 이차적으로는 조선 아이들 혹은 조선과의 관계도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는다.

담배로 변모한 어른들

(미군들이 육군병원(당시 아사히국민학교) 담벼락에서 미제 먹을거리를 던져주

는 - 인용자) 이들제는 어른들도 섞여 있었다.

나는 정문 옆 교회로 통하는 언덕길 중간에서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었다. 사람들과 싸우면서까지 얻을 생각이 없었고 바로 1개월 전까지 ‘귀축영미(鬼畜英美)’라고 말하던 어른들이 ‘기브미’라며 미군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132쪽)

미제 껌이나 초콜릿을 비롯하여 운 좋으면 담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재조일본인 어른들까지 합세한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적을 끝까지 적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어른들과는 반대로 패전과 미군의 등장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기 전에 조선 아이들과 상황이 허락할 때마다 어울려 놀았으나 이제는 오히려 조선 아이들과 놀 기회가 없어진 어린이 요시하라의 상황과 짝패를 이룬다.

이러한 극단적 현실의 경험은 일제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현장을 목도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간다. 이에 따라 요시하라의 일제의 정책과 조선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변화하는 측면이 생긴다.

인천신사(仁川神社)의 굽은 자갈

우리 가족이 살았던 곳은 반도 같이 동서로 튀어나온 인천의 서남쪽, 약간 높은 구릉 위에 지어진 일본인들만 사는 신흥주택지였다. 원래는 사정(寺町, 데라마치)이라고 불렸던 만큼 절이 네다섯 개 이어져 있었다.

우리가 노면 보수를 하고 있던 도로는 ‘대통(大通里)’이지만 상점이 죽 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층건물 속에 2층 건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일본가옥이 뻗뻗이 들어서 있는 폭 6, 7미터의 거리이다. 북쪽 아사히국민학교 정문에서부터 남쪽 인천신사의 기둥문까지를 잇는 길이 7, 80미터의 참배길이었다. 기둥문 앞에는 돌계단이 있고 바다에 면한 한층 높은 언덕 위에는 인천신사가 진좌하고 있다. 신사 주변은 궁정(宮町, 미야마치)이라고 불리고 있다.

경성의 조선대신궁보다 20년 빠른 1923년에 천좌(遷座)한 이 인천신사의 경내

는 탁구공 정도 크기의 검은 빛나는 굵은 자갈이 깔려 있다. 아마 조선반도 강 어딘가에서 채취한 흑어영석(黑御影石)일 것이다. 나는 귀환 후에 전국을 돌며 많은 신사에 참배를 했지만 **인천신사만큼 아름다운 자갈이 있는 신사는 본 적이 없다.**

조선민족에게 신도(神道)를 포교하기 위해서는 내지 이상으로 훌륭한 사전(社殿)과 신역(神域)이 필요하다고 당시의 위정자나 궁사(官司)는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그 효과가 있었는지, 종전 당시의 인천신사의 우지코(氏子, 같은 씨족신의 후손)는 2만명을 넘었고, 그 안에 1만 4천 명이 조선인, 일본인은 6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인도 상당히 신앙을 집중하고(모으고) 있었던 것이다.(강조-인용자)(45-46쪽)

“그리고 보니 그때 저 근처에 신사 따위 없었다. 언덕 위에 광장이었어. 일본은 이상한 종교를 우리들(조선인-인용자)에게 강요했는데 그건 안 좋아. 어떤 신앙이든 종교는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지.”

그 장로의 말에 나는 러일 간의 인천해전(구미에서는 제물포해전)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 또 **신사의 창설과 신도의 강제가 조선인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다.(강조-인용자)(117-118쪽)**

일제의 ‘신도(神道)’를 전하기 위해 인천신사를 공들여 지어놓았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요시하라의 생각은 한 조선인 장로의 발언으로 처음으로 교정된다. 그리고 교정된 조선에 대한 인식은 인천신사의 아름답던 굵은 자갈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8월 16일부터 8일간 조선 전역에서 방화, 파괴된 신사(神社)는 136개소가 넘었다.”(77쪽)는 사실을 함께 부기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음을 드러낸다.

2) 나쁜 조선인/착한 조선인의 이분법

조선인에 대한 인식이 서술될 때 8살 어린이 요시하라의 시선과 어른 요시하라의 시선이 중첩되어 나타나는데 특별히 나쁜 조선인 인식이 드러난 사

건은 어른 요시하라의 관점에서 어린이 요시하라의 기억에만 의거하여 서술하지 않고 다른 정보를 참고하여 서술하고 있다. 그는 “조선인 ‘보안대’의 폭도”라는 소제목 아래 히로카네(広兼) 이비인후과 원장 히로카네 도라오(広兼寅雄)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여 서술하면서 “일본인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124쪽)라는 당시 조선인 보안대의 플랜카드를 인용하여 당시 폭주하는, 재조일본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나쁜’ 조선인의 존재를 부각하여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요시하라는 아버지가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국민학교의 사환으로 집에 드나들었던 젊은이가 부쩍 더 자주 드나들며 세간에 눈독을 들이더니 급기야는 세간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상황을 비롯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공간 인천에서 일어난 나쁜 조선인들에 의한 상황 곧 퇴직금을 일시에 정산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조선인과 일본인 사장들의 곤혹스러운 사정에 관해서도 상세히 묘사한다. 이러한 묘사들은 일제 강점기 내내 형성되어 유통되던 조선과 조선인에 관한 정형화된 인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사례들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어른 요시하라의 인식 속에서도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쁜 조선인 사건이 있는 만큼 어린이 요시하라에게는 착한 조선인에 관한 기억도 있다. 대표적으로 우연히 만난 조선인 장로와 당시 8살 동갑이었던 조선 어린이 류군에 관한 서술을 살펴보자.

조선인 장로의 초대

혼자서 멍하니 있는데 가까이서 십수 인 무리에 둘러싸인 조선인 장로가 말을 걸어왔다.

“얘야, 잠깐 여기로 와봐.”

(중략)

“황해해전 몇 개월 전에 이 바다에서도 해전이 있었다. 인천해전이라고 한다.”

“처음 들었습니다. 해전은 어땠어요?”

“저기 저쪽에 작은 섬이 보이지?”

장로는 나의 얼굴에 몸을 가까이 하고 서남쪽에 있는 섬을 가리켰다.

“알겠나? 저 섬 맞은편에 일본 군함 몇 척이 기다리고 있었다. 러시아 배는 인천항내에 아주 전부터 정박하고 있었는데 아마 일본 배를 쫓아버리려고 했겠지. 군함 두 척을 선두에 상선도 닻을 올리고 나갔다. 그리고 저 섬 약간 왼쪽, 방위로 하면 남쪽이 되려나. 다른 섬이 보이지. 그 부근에서 서로 접전이 일어났다.

그래도 싸움은 일방적이었다. 일본 군함에서 포탄이 날아가 러시아 군함에 훌륭한 명중, 화약고에도 인화된 듯 폭발이 일어났다.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봐. 러시아 군함도 상선도 모두 도망 와 항구에 들어왔고 저 앞의 섬 쪽에서 정박하고 있었지만 곧 모두 침몰하고 말았지.”

“배에 타고 있던 해군들도 함께 침몰했어요?”

“아니, 침몰하기 전에 프랑스 군함이 구명보트를 보내 도와줬어. 2, 3백 명은 살렸다고 생각된다. 모두 군함에 수용되어 포로가 된 사람은 없었다. 후에 중립위반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프랑스와 러시아는 사이가 좋았으니까. 인도적으로도 구해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 군함이 침몰한 장소

“그때 우리도 기뻐지. 동양인이 유럽인을 이겨버렸으니까. 여기에서 십수 인의 젊은이가 모여 함께 함께 보았다. 일본인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모두 크게 기뻐했다. 언젠가 일본인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네가 위치도 잘 기억해 뒤라. 저 섬과 저 섬 그리고 이 섬이다.”

장로는 몇 번이나 손으로 가리키면서 반복하였다. 역사의 증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강한 생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결코 잊지 않을게요.”

(중략)

그 장로의 말에 나는 러일 간의 인천해전(구미에서는 제물포해전)이 일어난 것을 알았다. (114-118쪽)

인천신사가 신사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인천항을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인

기능만 남아있게 되었을 때 어린이 요시하라는 예의 정겨운 마음과 더불어 미군의 상륙을 구경하고자 인천신사에 올랐는데 뜻밖에 그곳에는 미군의 상륙을 구경하려는 조선인들이 와 있었다. 그 중에 한 조선인 장로가 적극적으로 어린이 요시하라에게 먼저 다가온다. 그는 일본인 아이인 요시하라에게 러일전쟁 초기인 1904년 벌어졌던 제물포해전에 대해서 알려준다. 요시하라에게 조선인 장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일본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나쁜’ 조선인에 비하여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리하여 일본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조선인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조선인 장로와의 만남은 한 번에 그쳤지만 조선인 동갑 아이 류군은 인천신사에서 여러 번 만나고 또 만나지는 약속까지 하는 보다 친밀한 조선인으로 다가온다.

류 군과의 만남

류백철 군, 너에게는 대단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름을 적은 메모를 잃어버리고 말아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으므로 여기에 이런 이름으로 적고자 한다.

류 군이 말을 건 것은 조선인 장로의 말을 듣고 돌계단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너 육정 아이이지? 일본인은 이제 큰일이다.”

(중략)

“너도 1학년, 나도 1학년이야. 사이좋게 지내자.”

(중략)

“나는 지금 나를 류하쿠테쓰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조선 발음은 달라. 류하쿠테쓰는 일본에서 강제로 부르는 이름이다. 또 창씨개명으로 일본식 나카무리(中村)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이건 우리집에서는 쓰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니까 일본은 진 거다. 우리는 머지않아 본래 이름이 된다.”

이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우리 반에는 조선인 동급생이 3명 있었다. 모두 일본 이름으로 불렸는데 그들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다.(119-120)

어른 요시하라는 어린시절 짧지만 친근하게 지냈던 조선인 아이를 생각하며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이름을 자의적으로 ‘류백철’이라고 지어준다. 제5장의 제목으로 “조선인에게는 진짜 이름이 있었다”(112쪽)라고 붙이면서 조선인 친구에게 조선식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조선인 친구로부터 사실 조선인은 조선식 이름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서 ‘창씨개명’에 대한 판단은 보류하고 있다.

신문지에 싸인 조선떡

류군은 신문지에 싸인 커다랗고 무거운 것을 나에게 건네고 달음질쳐 갔다. 싸인 것을 열어 보니 조선떡이었다. 그것도 4, 5홉(6~7.5키로) 정도의 쌀을 사용한 커다란 덩어리였다.

(중략)

조선인의 가정에서도 떡을 만드는 것은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로 상당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만들지 않는다고 들었다. 류군이 준 떡의 크기로 판단하면 그것은 분명 나를 위해 일부러 만들어 준 것이었다.

(떡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류군과의 우정을 없애는 것이 된다고 생각했다. 결국 가지고 가야 하는 내 물건은 교과서와 필요 최소한의 문방구만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버리기로 결심했다. 필요한 의류와 담요는 가방 위에 쌓아 올리기로 하고 형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등에 멜 수 있었다. (중략) 1년 7개월을 지낸 인천 옥정(旭町)과의 이별이었다.(158-160)

인양 바로 전 류군이 어린이 요시하라의 집으로 찾아와 작별인사를 하며 커다란 조선 떡을 주고 간다. 류군과 헤어지는 상황에 대한 그 당시 어린이 요시하라의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는 없다. 다만 류군이 주었던 커다란 떡이 인양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 떡 덕분에 가족 모두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 류군에게 감사해야겠다.”

떡을 다 먹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류균과 헤어질 때 (류균이 했던) “분명 도움이 될 거야.”라는 말을 떠올렸다. 떡을 전부 가져오길 정말 잘했다고 여러모로 생각했다.

(중략) 2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은 가족에게 그 떡의 일부를 나누어 줄 수도 있었다. 그리고 보니 류균에게 사례하는 것을 잊었네, 나는 후회하면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166-167쪽)

마치 성경에 나오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여 살린 이야기의 다른 버전인 듯 류균의 조선떡은 인양길에 요시하라의 가족과 다른 일본인 동행자들을 살리는 귀중한 식량이 되었다. 그리고 그 떡에 대한 마음은 어린이 요시하라가 아닌 어머니의 발화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을 감명시킨다. 떡의 크기로 보아 류균이 혼자 생각으로 건넨 것이 아니라 류균의 가족이 보낼 생각을 해준 것으로 파악되는 순간 조선인 류균의 가족 전부가 ‘착한’ 조선인의 표상이 된다.

3. 추억의 기억화, 반성과 화해로 가는 길

요시하라의 일제말기와 인양기의 조선 체험은 2002년 인천을 방문하고 『내려진 일장기』를 집필하는 내내 현재로 호명이 되어 현재화되고 재구성되었다.

누나와의 인천 재방(再訪)

나는 누님은 2002년 9월 전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중략)

우리들은 우선 전 아사히국민학교를 방문했다. 인천신흥초등학교가 되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런 정보는 종전 당시 6학년이었던 고(故) 이소노 모리오(磯野守男) 씨에게 들었다. 이소노 씨를 비롯한 아사히국민학교 제56회생 동기생 10명은 1997년 2월 4일 당시 교장의 계획으로 인천신흥초등학교의 졸업식에 출석, 특별졸업증

서를 받았다. 또 2001년 10월에는 동기생 11명이 2명의 은사와 함께 인천신흥초등학교를 방문, 후배들을 격려하였다. 이소노 씨에게 우리가 사용했던 교사도 1997년까지는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도 들었다.

(중략)

드디어 니노미야 긴지로(二宮金次郎)의 동상이 있던 곳, 천황, 황후 양폐하의 사진이 봉납되어 있던 봉안전이 있던 곳 등은 옛날 그대로 경사면을 지키고 있었다. 러일전쟁 기념비로서 러시아 포탄을 이용해서 만든 기념물은 장소는 변하였지만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마 순양함 모리야크의 것이리라.

미군이 허리 숙여 추잉검과 초콜릿을 뿌리던 벽돌담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중략)

옛 그대로의 모습으로 멈춰있는 것은 학교 저쪽 프랑스코회였다. 현재는 답동성당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차분한 베이지색 벽돌색도, 날카롭게 치솟은 종루도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실재하고 있었다. 다만 최초로 태극기가 게양된 국기게양대는 보이지 않았다.(181-183쪽)

인양 후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인생의 행로를 걷다 60대에 들어 퇴직한 요시하라와 그의 동창생들이 “일본인이 많은 옥정(旭町, 현 신흥동-인용자)의 생활에서 부족한 것은 없”(10쪽)었던 인천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단순히 유년의 신화시대의 귀환을 원했기 때문일까? 그랬다면 사실 일기장에 써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면서 자기 위안을 삼는 편이 더 유용할 것이다. 요시하라는 잃어버린 신화시대를 혼자 만끽하기 위해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시절의 기억을 추억으로써만 묻어두기에는 당시 어려서 혹은 뭔가에 광포하게 휩쓸려 갔던 식민(지)의 기억을 꺼내어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자신과 가족, 나아가 인천과 조선, 조선인에 대한 무의식과 의식을 정리해 보아야 한다는 잠재의식이 내재해 있는 것은 아닐는지.

아사히국민학교가 없어진 지 반 세기 이상 지난 시점에서 후신인 인천신흥초등학교에서 특별졸업증서를 받은 동창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자는 문득 당시 “옥정”에 살았던 가족과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꼭 글로 써서

남길 결심을 하였을 것이다. 요시하라의 글은 그들의 특별졸업증서와 비슷한 식민지 인천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담겨 있으면서도 한 걸음 나아가 그것이 기반으로 하고 있던 제국의 기제와 그것의 붕괴 그리고 그 이후 상처와 상처의 외면에 대한 소극적 돌아봄이었다.

“잘있거라 인천아-잘있거라 인천아 이별 후에도 벚꽃은 무사히 피어나렴 머나먼 고향에서 쓸쓸한 밤에는 꿈에도 울리겠지 월미도야”²¹⁾라는 이별의 노래까지 준비하며 떠나기 싫은 인천을 강제로 떠나야 했던 『인천인양기』의 저자와 “저도 메이지 21년(1888) 인천에서 태어나 행복했던 소년시절의 추억이 그림습니다. (중략) 소화 12년(1937) 화북(華北)의 청도(靑島)로 옮긴 뒤부터 인생이 핀 것은 인천에서의 오랜 고락(苦樂) 경험이 초석이 되었던 것으로 모두 조선 시절 덕분”²²⁾이라고 생각하는 편집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조선시대’를 추억하고 공유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저자 요시하라는 어린 시절 요시하라의 조선에서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하되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이나 보강 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인양기(引揚記)를 참고하여 『내려진 일장기』를 구성하였다. 참고한 서적은 글 맨 뒤에 “주요참고문헌”으로 밝혀두었다.

아버지는 그다음 개성(당시는 가이조)의 국민학교(소학교는 국민학교라고 불리게 되었다)로 전입되어 우리들도 이주하였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최초의 사건은 세 살 때 숙모를 따라 개성 남대문 앞을 걸었던 것이다. 여동생이 태어났기 때문에 숙모가 광주에서 도와주러 와 있었다.

개성은 고려시대, 약 470년에 걸쳐 수도였던 유서 있는 마을이었지만 우리가 살았던 곳에는 이미 그 영향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자벨라 버드도 저서 『조선기행』에서 개성을 애칭 ‘송도’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일찍이 수도였음에도 유적다운 것은 왕궁터의 돌층계

21) 고타니 마스지로(小谷益次郎), 『인천철수지(仁川引揚誌)』, 윤해연 역, 『황해문화』 31, 2001.06, 244쪽.

22) 같은 책, 같은 곳.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 확실히 나의 기억에도 남대문과 고려왕조의 왕릉군 정도밖에 없었다.

남대문은 후에 본 경성의 남대문과 거의 같은 모양이었다. 단 약간 작았다고 기억된다. 숙모에 이끌려 갔던 남대문 앞에서는 시장이 열렸고 수백의 노천상점이 줄지어 있었다. 대개가 노상에 자리를 깔고 상품을 늘어놓은 상점이었다. 그 일각에서 바나나를 싸게 팔고 있었다. 숙모는 “시줄까?” 라며 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으나 나는 거절하였다. 이후 십수 년 바나나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다.

내가 본 것과 같은 광경을 그녀는 약 50년 전에 목격하였던 것이다.(52-53쪽)

요시하라는 세 살부터 인천에 오기 전인 8살이 되던 해 3월까지 개성에 살았을 것이다. 인용문에서는 개성에 살았을 당시의 에피소드들을 서술하고 있다. 그 중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1897년까지 한국을 네 차례 방문하고 펴낸 『조선기행』²³⁾에서 개성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참고한 대목이다. 요시하라는 유년기의 경험을 종합하여 느꼈던 개성의 기억, 즉 “유서 있는 마을이었지만” “이미 그 영향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비숍의 개성기를 간접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비숍은 「개성-옛 왕조의 수도」라는 제목을 달아 “한국의 도시에는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적었는데 이 옛 도읍도 예외는 아니”라고 소개하면서도 “성담에는 독특하게 용이 음각되어 있는, 오백년은 된 듯한 훌륭한 종이 있었고, 화려한 모양새를 하고 관아를 호위하고 있는 궁술대와, 한때는 훌륭했으나 지금은 황폐해지고 일본인 병사가 지켜서 있는 음침한 공자의 사당과 전신(戰神)의 눈부신 사원이 있었다.”²⁴⁾와 같이 황폐한 외중에도 알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착실히 묘사하고 있다. 요시하라가 지적한 돌계단

23) 한국에서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인화 옮김, 도서출판 살림, 1994)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음.

24)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인화 옮김, 도서출판 살림, 1994, 341~342쪽.

도 작가 나름의 안목으로 성심껏 살핀 흔적을 행간에서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하라는 자기식의 독해와 요약을 통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글을 황폐한 개성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로써 일제강점기까지의 개성의 이미지를 유서 깊은 곳이지만 현재 황폐화된 곳으로 확정하여 독자에게 제공하고 만다.

한편 종전 전후 시기, 특히 인양과정까지 인천에서 있었던 일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고타니 마스지로(小谷益次郎)의 『인천인양지(仁川引揚誌)』²⁵⁾와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의 『조선종전의 기록: 미소 양군의 진주와 일본인의 인양(朝鮮 終戰の 記録: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²⁶⁾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의 경험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자주 참고하고 적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조선인 보안대와 히로카네(広兼) 이비인 후과 원장의 사망 사건의 경우 고타니의 글을 정리하여 인용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을 포함한 당시 조선에서의 미군과 조선의 관계 변화와 같은 정치, 역사적인 부분이나 재조일본인이 많아지게 된 원인 가봉(加俸)²⁷⁾제에 관한 부분 등은 후자 모리타 요시오의 글을 착실히 참조하여 확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8살 요시하라의 일제강점기 말기와 인양기 조선에서의 기억과 경험은 어른 요시하라의 개인적인 공부와 정리에 의해 참조되고 재구성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기왕의 생각들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여도 고타니 마스지로나 모리타 요시오 등의 기록으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돌이켜보면 종전부터 귀국[引揚]까지는 불과 2개월 반이라는 짧은 기간의 체험에 지나지 않지만 반 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도 많은 일들이 강렬히 새겨져 있으며”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여러 현장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생각은 신문에 삽사하고 또 퇴직한 후부터 계속 마음을 감싸

25) 小谷益次郎, 『仁川引揚誌』, 大起産業, 1952. 한국에서는 고타니 마스지로(小谷益次郎), 『인천철수지(仁川引揚誌)』(윤해연 역, 『황해문화』 30, 2001.03); 고타니 마스지로(小谷益次郎), 『인천철수지(仁川引揚誌)』(윤해연 역, 『황해문화』 31, 2001.06.)로 부분 발췌, 번역되어 있음.

26) 森田芳夫, 『朝鮮 終戰の 記録: 米ソ兩軍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 巖南堂書店, 1979.

27) 재조일본인에게 일본 내의 일본인 월급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주는 제도를 말함.

고 있었다. 그 무게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봤던 것, 들었던 것이 극명한 기억”(5쪽)으로 전환되어 『내려진 일장기』의 형태로 그 시절의 상처를 돌아보았던 것이다. 비록 그의 이런 의식이 “한국과 일본의 민관이 함께 융화의 방향을 걸어간다면 양국관계는 친밀하게 되고 아시아 평화에 크게 공헌”(185쪽)하자는 식으로 아주 거칠고 단순하게 정리되어 극단적인 양극의 해석을 불러일으키지만 사실은 ‘제국의 브로커’도 아니고 ‘식민자의식’이 강렬하지도 않았던 한 재조일본인의 ‘화해를 위한 기억’²⁸⁾의 일단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28) 최원식, 「식민지문학의 존재론」, 『기억의 연금술』, 창비, 2021, 14쪽.

■ 참고문헌

자료

- 吉原勇, 『降ろされた日の丸－国民学校一年生の朝鮮日記』, 新潮社, 2010.
- 고타니 마사지로(小谷益次郎), 『인천철수지(仁川引揚誌)』, 윤희연 역, 『황해문화』 30, 2001. 3.
- _____, 『인천철수지(仁川引揚誌)』, 윤희연 역, 『황해문화』 31, 2001. 6.
- 小谷益次郎, 『仁川引揚誌』, 大起産業, 1952.
- 『太極旗와 警察署』, 『동아일보』, 1925. 4. 1.

단행본

- 우치다 준, 『제국의 브로커들－일제강점기 일본 정착민 식민주의 1876-1945』, 한승동 역, 도서출판 길, 2020.
-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이인화 옮김, 도서출판 살림, 1994.

논문

- 권숙인, 『식민지배기 조선 내 일본인학교－회고록을 통해 본 소·중학교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77, 한국사회사학회, 2008. 3.
- 김예림, 『포스트콜로니얼의 어떤 복잡한 월경적 연애에 관하여 구식민지와 구제국 그리고 기억－기록의 정치학』, 『서강인문논총』 3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 _____, 『중단한 자, 횡단한 텍스트－후지와라 데이의 인양서사, 그 생산과 수용의 정신지(情神誌)』, 『상허학보』 34, 한국어와문화회, 2012.
- 김윤경, 『재인천일본인 고타니 마사지로의 삶과 활동』, 『인천학연구』 25,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6. 8.
- 노상래, 『귀환서사에 나타난 규열과 직시되는 진실－후지와라 테이의 『흐르는 별은 살아있다』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6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5.
- 노영돈, 『태극기의 국기로서의 최초 사용과 인천』, 『인천학연구』 26,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7. 2.
- 박이진, 『아시아의 망령, 귀환자의 '전후'－아베 고보 『인어전(人魚伝)』을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35,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 박진한, 『통감부 시기 인천의 시구개정사업과 행정』, 『동방학지』 18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 신승모, 『인양(引揚) 후의 유아사 가쓰에 론－연속해가는 혼효성(混滲性)』, 『일어일문학연구』 71, 한국일어일문학회, 2009.
- 이가연, 『해방 직후 재조일본인 '귀환[인양(引揚)]' 연구의 성과와 전망』, 『지역과 역사』 47, 부경역사연구소, 2020. 10.
- 이동훈, 『일본인 식민자 사회가 바라본 3.1운동』,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21, 2019. 8.
- 이수열, 『재조일본인 2세의 식민지 경험－식민 2세 출신 작가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2.

A Japanese residing in Korea's recollection of salvage and its meaning

– Geography of Incheon at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in Isamu Yoshihara's 『The Japanese Flag Dropped』 –

Yun, Miran*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Koreans by the Japanese living in Korea regarding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period of salvage and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Isamu Yoshihara's essay "The Japanese Flag Dropped - Chosun Diary of a First Year Student at Elementary School" (2010). The author, Isamu Yoshihara looked back on his experiences in Incheon as a Japanese based on the end of the war. He recognized the situation in which the United States confronts the reality of going from an enemy of the past to an enabler of today. He said to have subverted the existing Chosun (people) beyond the good Chosun people episode that strengthened the standardization of Chosu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y picturing another Korean in a dichotomous way (bad Chosun people/good Chosun people). Yoshihara was neither an "Imperial Broker" nor had a strong sense of "colonialism.", a Japanese residing in Korea, reconstructed the experience of Incheon during the salvage period as 'memories for reconciliation'.

* Research Professor of Inha Univ. Center for Korean Studies

Key words: Yoshihara Isamu(吉原勇), “The Japanese Flag Dropped – Chosun Diary of a First Year Student at Elementary School” (2010), Japanese residing in Korea, salvage memory, Incheon, reconstruction, reconciliation